모두 발언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23. 4. 3)

【 3월 수출실적 평가 및 전망 】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수출 증감률 추이(%) : ('22.12월) △9.6 → ('23.1월) △16.6 → (2월) △8.6 → (3월) △13.6

다행히 무역적자 규모는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1월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무역수지 추이(억불) : ('23.1월) △126.5 → (2월) △53.1억불 → (3월) △46.2억불

그러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우리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과 함께
강력하고 속도감 있는 수출드라이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및 계획 】

정부는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관련 부처가 모두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한 달간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22.3월)을 통한
20억불 이상의 계약 체결과 함께,
녹색산업, 스마트팜 등의 분야에서
중동 국가와 대규모 수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에 필수적인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 인허가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신속히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158만불* 규모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수출 부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특장차 74만불 수주, 필리핀·태국에 EVA Roller(바다 부표) 84만불 수주

아울러, 기업애로 해소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부처간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선박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물류애로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전세계 117개 콜드체인 인프라를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인증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인증지원단」을 금주 중에 개소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수출마켓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범부처 합동 박람회를
올해 독일과 태국에서 2차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조선산업, 디지털산업, 의료기기, 녹색산업, 수산식품, 디자인 등
분야별로도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對日 수출 지원 방안 】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하였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정상회담 이후 피어나는
한일 경제계 협력 무드를 가속화 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對日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마켓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이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시회, 상담회 등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일본의 디지털 · 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우호적 여건 하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 재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당부말씀 】

올해 1분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수출플러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간 내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출지원예산(약 1.5조원)을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수출계약 한 건이 아쉬운 시기인 만큼
수출현장을 자주 찾아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고 적극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